“은퇴출가로 인생 2막 열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 개최

17~1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2019~2021년 은퇴출가자 참여해
은퇴출가제도 시행 이후 첫 교육
치문 · 예불 등 전문 강의 진행돼

공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치문(緇門)은 먹물 옷을 입은 사문을 의미합니다. 학인 때 배우는 〈치문경훈(緇門警訓)〉의 준말이기도 하죠.”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이 사미 · 사미니 스님들에게 ‘치문’에 대해 설명했다. 연각 스님의 강의에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은 한 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했고, 필기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사미 · 사미니 스님은 조금은 특별했다. 모두 조계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퇴출가제도를 통해 출가한 학인 스님들이어서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2년도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교육에는 2019년~2021년에 수계한 사미 25명, 사미니 14명 등 총 39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특히 은퇴출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미 · 사미니 스님 합동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수출가제도인 은퇴출가제도는 사회에 헌신한 은퇴자들이 불교의 사문으로서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51~65세 은퇴자들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2년도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은퇴출가자 교육에서는 교리 · 포교 · 참선 · 염불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의 ‘포교방법론’, 보문사 선원장 지범 스님의 ‘참선수행의 이해’,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의 ‘육조단경’, 조계종 어산어장 화암 스님의 ‘염불수행과 의례’,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조계종 교육국장 무일 스님의 ‘조계종단과 종법의 이해’ 등이 진행됐다.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은 첫 합동교육에 만족감을 보이며, “은퇴출가가 새로운 삶을 열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호국지장사에서 선묵 혜자 스님을 은사로 은퇴출가한 사미 도신 스님은 본래 속가에서는 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원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은퇴출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2년을 준비해 정년퇴임 다음날 출가했다. “출가 도반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행복하다”고 밝힌 도신 스님은 “출가 이후 세속의 무절제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졌다”며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미래지향적 삶을 살고 싶다면 은퇴출가를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불영사에서 일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사미니 여교 스님은 가족의 죽음으로 무상함을 느껴 출가를 하게 됐다. 여교 스님은 “불영사 승가대학에서 수학 중인데 대중생활에서 느끼는 점이 많다. 서로 화합하고 돕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낀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해 남은 생을 자리이타의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은퇴출가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해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가 문화의 확산을 통해 불법을 널리 홍포하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통해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으로 삶의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출가자로서 살아갈 발심과 서원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정사 불법양도 추진문건 확인…추가피해 우려

권한 없는 불법계약 ‘논란’
법화종, “조속정리에 만전”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총본산 안정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종단 품으로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안정사와 종단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다른 종단 승려에게 안정사를 불법적으로 양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안정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5억원을 차용하고, 탈종과 입종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인수인계확인서’ 등 각종 서류에 따르면 올 5월 16일 안정사 前주지 이재열(승헌) · 前총무원장 당선자 임채곤(거암)은 제3의 인물을 상대로 안정사를 인계 ·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재열(승헌)은 ‘확약서’를 통해 △2020년부터 진행돼 온 안정사 인수인계 과정을 원칙으로 할 것 △안정사 재산과 종무행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올 5월 16일로, 이미 이재열(승헌)은 안정사와 관련한 일체 직위와 권한은 물론, 법화종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까지 확정돼 승적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임채곤(거암)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총무원장 당선 자체가 무효화됐으며,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가 확정된 시점이다.

안정사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인물’ 효범 스님에 대한 의혹도 거세다. 효범 스님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상좌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여러 문제로 논란을 야기해 교구와 문중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예경실측은 효범 스님에 대해 “어른 스님께서 한때나마 상좌의 연을 맺었기에 보듬어 안고자 하셨기에 교구 차원에서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다른 종단까지 넘나들면서 황당한 행태를 벌인 사실을 인지하고 예경실과 교구본사 차원에서 어른 스님께 정식으로 이연절차를 밟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작업 진행절차’에 따르면 효범 스님은 불사금 5억을 이재열 측에 지급하는 댓가로 안정사 주지 임명을 계획해 왔다.

양측은 △안정사 인수 후 종단 탈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작업을 완벽히 수행 △(법화종)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후 주지 임명 시기는 2~3년으로 한다(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6월 3일에는 이재열(승헌)을 차용인으로 5억원에 대한 차용증도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효범 스님은 “승적관계는 자세하게 모른다”며 “단순히 부처님 도량이 방치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불사의 마음을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화종 총무원 관계자는 “약정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라며 “이미 약정서에 적시된 계획의 상당부분이 총무원과 법원에 의해 무산됐는데도 재차 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적으로는 모든 정상화가 끝났고 잔불 정리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정사가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속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의도치 않게 내부문제로 다른 종단의 큰 어른스님이 거론된 점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조계종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과 종단 입장을 전달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사진 왼쪽부터 봉선사 마애불 입불기금 전달식, 은해사 인재육성 기금 전달식, 금보암 재호 스님의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불교증흥 염원하며 전국 사찰들 기금 전달

봉선사,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2천만원
은해사, 선화여고 장학금 1억1900만원
금보암 재호 스님, 승보공양 2000만원

불교증흥의 새역사를 발원하며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해 전국 사찰들의 후원금이 속속 모이고 있다. 경주 열암곡 부처님 세우기, 불교 인재양성, 승보 공양 등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는 사업들에 불자들의 염원이 담겨 훈훈함을 더한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기금 2000만 원과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종단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가 원만 회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구본사와 말사에서 기금을 모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약속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포교 중심의 종책 사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종도들의 기대가 크다. 교구본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 차원에서 힘을 계속해서 보태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희망이 생긴다”면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사업은 ‘천년을 세운다’는 취지와 의미를 담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천년 간 나라가 융창하고 불교가 중흥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 기금 기탁도 이어졌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10월 20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종립학교인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 1900만원을 지정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후학스님들을 위한 노스님의 기금 기탁도 눈길을 끈다. 직할교구 말사 서울 미타사 금보암에 주석 중인 재호 스님은 10월 20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금은 7살에 동진 출가해 평생 금보암에서 수행정진해온 재호 스님이 근검절약해 모은 용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수 85세인 재호 스님은 “우리 종단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른 어려운 곳에도 차례로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뜻을 잘 받들어 승려복지에 잘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옆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작주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하는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감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자립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장려,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피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이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원융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